

[종합]

■ 울촌산단 입주 수도권 기업에 들어보니

“물류난 걱정 덜었지만 인센티브는 부족해요”

“물류체계가 뛰어나지만 특별한 지원은 없어서..”

최근 광양만 경제자유구역내 울촌산단으로 생산설비를 옮기기로 한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 결정 소감이다.

수도권에서 조업해오던 (주)디에스, (주)그랜드솔라는 지난 주 울촌산단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업체로 울촌산단에 동지를 새로 쓰는 기업은 이들이 처음. 물류난에 시달리던 기업들의 (탈) 수도권 행렬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차별화되지 않은 인센티브로는 큰 기대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두 업체가 광양만권을 새 터전으로 삼게된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물류의 어려움 때문이다.

울촌산단 2만 8천870㎡에 95억원을 투자해 알루미늄 압연, 압출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주)디에스는 1986년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창업, 포스코 등에 납품해 왔다.

디에스 관계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재료가 도착하는 인천항에서 공장까지 옮기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탓에 설비를 이전키로 했다. 원료를 실은 배가 예정보다 10분만 늦게 닿더라도 이동이 지체되는 바람에 생산라인을 정지시켜야할 정도로 곤란을 겪어 왔다”고 토로했다.

디에스가 울촌산단에 정착하면 지역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나 부산-울산항을 통해 원료를 수입할 수 있어 물류비가 대폭 절감되는 것은 물론 최대 거래처인 포스코도 가까이 금상첨화다.

울촌산단 9천900㎡ 부지에 30억원을 투자해 태양열 운수기 및 집열기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주)그랜드솔라는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태양열 집열기, 운수기를 제조 판매해온 전문업체. 수도권이 점차 비대해지면서 부산항을 통해 원재료를 수입한 후 미국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 들어가는 물류비는 경영을 강하게 압박했다. “울촌산단에서 생산을 재개할 경우 물류비가 이전의 5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막상 이전을 결정했지만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은 어렵다는 말에 부풀었던 가슴도 이내 가라앉았다.

울촌산단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해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는 것은 타 공단과 별반 차이가 없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의 세제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광양만권은 개발이 잘된 지역에 해당돼 그리 큰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물류체계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산단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이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겠지만 수도권 기업이 광양만권을 비롯해 전남지역으로 물러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 등 타 지역보다 뛰어난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엔 울촌산단으로 이전을 결정한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목할만한 인센티브 제의는 없었다.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설비 이주보조금 등을 지원해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기자 uni@kwangju.co.kr



광복절 ‘민주의 종각’ 타종

광주시는 제62회 광복절을 맞아 15일 낮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민주의 종각’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식이 열렸다. 박광대 광주시장·조비오 신부·무심 시암연합회부회장·최창모 광복회원(오른쪽 줄), 강박원 광주시의회위원장·안기영 기독교교단협의회장·하옥현 광주지방경찰청장·윤재민 광복회원(왼쪽 줄)이 타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백의 계절..

이번엔 윤석화씨 “난梨大 다닌 적 없다”

신정아 파문이후 문화예술계 학력검증 도미노

신정아 전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에서 시작된 학력 위조 파문이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인사들이 언론의 추적보도로 인해 졸졸이 학력위조 사실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수십년동안 대중을 속여온 가짜 학력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커밍아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은 더욱 이채롭다.

특히 생소한 분야가 많아 학위 검증이 어렵고, 실력이 있어도 학력이 약하면 무시당하는 구조적 문제로 학력위조가 많을 것으로 지적돼 온 문화예술계는 ‘고백 행렬’이 이어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극인 윤석화(51·월간 객석 발행인)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화여대를 다녔다”고 밝히면서 “어릴 적 철없이 했던 거짓말이 30년세월 동안 양심의 발목을 잡았다”고 고백했다.

윤씨는 그간 1974년 이화대에 생활미술과에 입학했지만 연극의 매력에 빠져 입학 1년 만에 자퇴했다고 말해왔었다.

인기 만화가 이현세는 신정아 파문 전

발간된 골프만화 서문을 통해 “나는 서러발에술대 중퇴가 아닌 고졸 학력”이라고 밝혔다.

또 ‘연달갈’로 유명한 작가 이철환씨도 최근 발표한 산문집 ‘반성문’을 통해 공고를 나온 뒤 공장에서 일하다 뒤늦게 대학을 졸업한 후 학원강사로 일하며 제자들에게 ‘서울대 출신’으로 속였던 점을 고백했다.

언론 보도로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많았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자 동국대 교수로 미술계의 ‘신대발’이었던 신정아씨,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집을 짓게 하는 ‘러브하우스’로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상하씨, 인기 영어 프로그램인 ‘굿모닝 팍스’의 이지영씨, 단국대 교수이자 동아일보센터 대표인 연극인 김옥랑씨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신정아, 이상하, 김옥랑씨는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또 ‘디 워’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심형래 감독은 고려대 식품공학과 졸업과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겸임교수 여부가 1년 만에 자퇴했다고 말해왔었다.

그밖에 ‘행복 전도사’ 정덕희씨 역시 고



<윤석화씨>

<이현세씨>



<이상하씨>

<심형래씨>

졸 출신임에도 자신의 저서 등에 방송통신대 졸업,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라는 허위 사실이 게재됐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학력 위조에 대해 네티즌들은 “학벌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낳은 병폐”라고 말하면서도 일부 인사의 ‘고백’에 대해서는 “유명인들의 이따금 학력위조 파문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학력을 계속 숨기지 않았겠다”며 쓴소리를 했다

지역기자 mekim@kwangju.co.kr

지자체 ‘건강지표’ 순위 매긴다

주민 음주·흡연, 고혈압 유병률 등 통계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주민들의 음주율과 흡연율, 고혈압 유병률 등 각종 건강지표를 통계적으로 분석, 순위를 매겨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자체의 건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건강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군·구별 건강통계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별 주민들의 대략적인 건강상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지표가 좋은 1등 지자체부터 꼴등 지자체까지 성적표가 공개되는 셈이다.

복지부 건강투자기획팀 관계자는

“지자체별 음주율 등 건강상태의 순위가 집계되면 그만큼 더 지자체장들이 분발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보건사업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지자체별로 벌이고 있는 암 관리사업이나 정신보건사업 등 10개 지역보건사업을 통합해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별로만 평가해왔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자체별 금연 프로그램이나 비만관리 프로그램 등 건강투자사업 성과를 받아 평가를 거쳐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시한 지자체에 미리 확보한 100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연합뉴스

북, 뉴욕 필 평양 초청

미 “내년 초 초연 순회매 가능”

북한이 뉴욕 필 하모니의 평양공연을 초청하고, 미국측이 이를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뉴욕 필하모니의 에릭 라츠키 대변인은 14일 북한 문화성 대리인으로부터 평양 공연 초청 서한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뉴욕 필하모니는 어떤 공연 초청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츠키 대변인은 북한측의 초청이 뜻밖이고 이례적이라며 “평양 공연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국 정부와 논의를 거친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양 공연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뉴욕 필하모니의 동아시아 순회공연이 있는 내년 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미 국무부측은 뉴욕 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광역시 광안로1길 10, 11층. ☎(062)220-0524

공시최고. 사 건 2007카공 23. 신청인 김숙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61-3. 2007년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입 수 회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 (062)531-3636, 531-0700

고시원 매매. *최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 입니다.

*크로바공인중개사. *432-4560/018-690-3110. *상가·건물 매도. *상가 임대. *구함

산행안내. 8월 18일(토) 광주한길산악회 지리산 1박2일 등주. 8월 19일(일) 나사도산악회 천북 무주 등주. 8월 20일(월) 광주산악회 천북 무주 등주.

다들키메 (사)요산요수산악회. 8월 25일(토) 8월 20일(월) 8월 21일(화) 8월 22일(수) 8월 23일(목) 8월 24일(금) 8월 25일(토) 8월 26일(일)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하십시오. H.P:011-604-5239

*상가 임대. *구함. *사구지역 상가 전문. *귀하의 소중한 재산 가치를 다하겠습니다